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딤후2:1-7

우리는 2월부터 전도자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만 포럼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함께 우리의 전도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도에 관심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전도 포럼만 할 수 있는 모임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도 포럼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장을 지속적으로 나가고 거기서 중요한 응답과 역사가 지속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증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에 3오늘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주로 하는 포럼은 말씀 포럼이었지 기도 포럼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 응답이 지속되지 않았고 기도의 세계가 깊지 않아서 기도 누림에 대한 포럼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도 포럼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그래서 이 중요한 제자 모임이 지속이 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놓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의 전도는 전도만 포럼할 수 있는 모임을 지속할 수 있을 만큼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중요한 발전이고 굉장한 시간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2개 팀사역 전도팀이 등록을 하고 있지만 이름만 올라 와 있고 움직이지 않은 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 모임을 지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모임을 지속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중에서 뜻이기 때문입니다.

1.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1)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러면 주께서 네게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해 보니 그렇더라는 말일 것입니다. 사단과 인간과 세상에 속아서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맑은 정신과 언약으로 총명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2)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 보라는 말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말해 온 것을 일단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많은 증인들 앞에서 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3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고 4절 자기 일에는 하나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평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5절 법대로 경기하여 승리자의 관을 얻는 것이요 6절 나는 하나님의 농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위하여 평생을 드리는 하나님의 농부다.
3) 이러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범사에 총명을 주셨다. 그리하여 실수하거나 잘 못된 선택을 하거나 낭패를 당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성령 인도를 누리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4)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안에서 강하고, 가는 곳마다 충성된 자를 찾아서 이 복음을 부탁하고,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충성된 자를 찾기 위하여 기도하고, 언제든지 군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을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잊지 말고 자신의 개인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하여 항상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하나님의 밭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 같은 농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먼저 임하는 것도 잊지 말라. 이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네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5) 바울이 생각해 보라고 한 내용입니다. 조금 많게 느껴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려 놓으면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오히려 더 많은 단어들을 받을 것입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의 내용은 많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62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데도 가만히 살펴 보면 필요 없은 것은 하나도 없고 중복된 것도 없습니다.
6) 가만히 말씀을 펴 놓고 하나 하나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라 그러면 주께서 네게 범사에 총명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총명을 받는 방법이라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총명을 받는다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지속으로 실패하지 않으면 누구나 정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과 같은 작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정복의 길이 이 생각해 보는 것에 있다면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7)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라 범사에 총명을 얻을 것이다. 내가 그랬다.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 자신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 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날 것입니다.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2. 충성된 사람들

1)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사람들이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십니다. 누가 충성된 자들이겠습니까. 복음을 가진 자들,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는 전도자들, 이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응원하는 자들, 이 놀라운 일을 이어받아 다음 대에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바톤을 받을 자들,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 전도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2)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적인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소원에 인생을 담으며 충성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빈틈없는 충성입니다.
3) 그리고 300%의 정신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 그 곳에 도달하는 것도 충성된 자의 중요한 덕목일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결국은 약속하신 그 곳에 도달하려는 결심을 갖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도 충성된 자의 빼지 못할 특성입니다. 그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 곳을 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 인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Nobody Nothing이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4)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언약에 오직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지식을 전달하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옵니다. 복음이 그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이 무슨 소리를 해도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다. 막을 자는 없습니다.
5) 이 놀라운 응답을 Nobody에서 얻고 Nothing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세상을 초월하는 충성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슬픈 것도 아니고 억울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이 완전한 답이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자리를 꼭 집어서 백성을 보내신 곳입니다.
6) 시대적인 복음을 받고 총명을 누리고 충성된 자의 인생이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